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24/32℃ 목포 24/30℃ 여수 24/30℃
단기 4343년 (음력 7월 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50호 1판 2010년 8월 12일 목요일

광주 과학기술 역량 수도권 절반 수준

전남은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

미래성장동력인 광주의 과학기술 역량이 수도권의 절반, 대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3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11일 발간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에서 서울이 31점 만점에 17.923점으로 1위를, 경기도는 15.752점으로 2위, 대전은 15.116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9.098점으로 5위, 전남은 7.060점으로 14위에 머물렀다.

광주는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에 머물렀으나 서울·경기·대전과 격차가 컸고 전국 평균(9.491점)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물적 기반시설이나 지원제도, 문화 등의 지표에서는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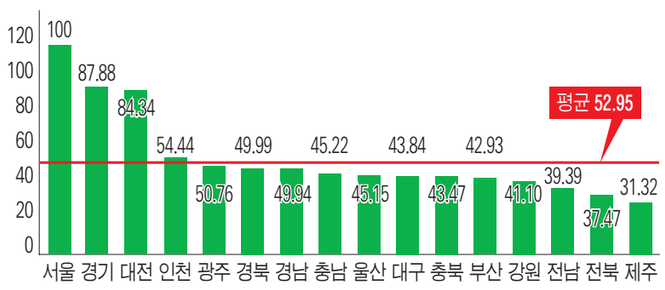
'SOC 및 재정력 지수'에서는 5.96점으로 8위, '문화'와 '혁신활동률'에서는 각각 0.077점, 30.9점으로 최하위인 16위였다. 연구개발투자액에서도 광주는 5004억원에 그쳐 대구(5080억원)에 이어 전국 12위로, 연구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 투자미흡이 지역과학기술역량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세 이상 인구 중 박사 비율은 0.052%로 서울의 0.061%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의 선전으로 최근 5년 간 SCI논문은 4624건으로, 서울(4만3939건), 대전(1만2827건)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거의 전 부문 지수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특히 과학기술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원인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등 자원부문에서는 최하위였다. 인적자원 항목(0.018점), 지역별 인구 만명 당 연구원 수(14명), 25세 이상 인구 대비 박사 비율(0.007명) 등은 전북이나 제주보다도 뒤진 16위로 조사됐다.

다만 물적 기반시설이나 지원제도, 문화 등 환경부문에서는 6위로 평가됐다. 연구개발활동 지원제도에서는 2.000점으로, 전국 평균 0.561를 3배 이상 넘어선 1위였다. 또 지원절차 편의성과 행정처리 신속성 등에서도 각각 3.50점, 3.55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적 기반시설 면에서는 아예 점수를 매길 수 없는 0점으로, 제주(0.419점)나 전북(0.471점) 등보다도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 수준 (서울 100 기준)



태풍 뒤 햇살…바쁜 염전

제4호 태풍 '뎬무'(DIANMU·電母)가 전남지역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은 채 지나간 가운데 11일 오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죽도염전에서 염부들이 천일염 채취에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다. 기상청은 올 여름 태풍 1~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영광=김진수기자 jeans@

전남에도 국립박물관 생긴다

내달 나주에 착공 2012년 완공
영산강 유역 문화·유적 한눈에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와 유적 등을 한눈에 보여줄 국립 나주박물관이 다음달 착공돼 2012년말 완공된다.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야미산 자락 7만4300여㎡에 들어설 나주박물관은 총사업비 400억원에 전체 건축면적 1만950여㎡, 지하 2층·지상 1층으로 지어진다.

야미산 일대는 영산강 고대문화 중심지로 국보 제295호 금동관을 비롯해 금동신발·대형 옹관고분 등이 출토된 역사적 현장이다.

전남지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곳으로, 정부는 1998년 나주 복암면 일대를 건립 예정지로 선정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사업추진이 보류됐으며 12년여 만의 결실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과 부지내 유적발굴 등으로 연기됐다.

나주박물관에는 전시실과 호남지역 출토 유물 보관 수장고, 영산강 고대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발굴 등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들어서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정칠현기자

민주당, 영산강 사업 부분 찬성

보 설치·대규모 준설은 반대

민주당은 11일 대형 보 건설 중단, 대규모 준설 최소화, 지류 및 소하천 정비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민주당은 영산강의 경우, 보 건설 중단 등을 통해 마련되는 비용을 수질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최악의 수질 상황을 감안, 일부 구간에 준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치수.용수 차원의 4대강 살리기에는 찬성하지만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은 반대한다"며 보 건설 및 대규모 준설 반대, 사업 시기 및 예산 조정 등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위 영산강 팀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영산강은 평상시 수질이 3~4급수이고, 갈수기에는 4~5급수인데도 본류에 대한 수질 개선 투자가 다른 강에 비해 최저인 상태"라고 지적한 뒤 "보 건설 중단 등을 통해 마련되는 1조 5090억원을 수질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